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홍 달아기(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아동복지학과)

I. 서론

최근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의 흐름은 초기와는 다르게 농촌총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국제결혼의 모습에서 도시근로자와 재혼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국제결혼의 양상이 모습을 달리함에 따라 이들이 형성한 다문화 가정의 삶의 모습과 갈등원인, 가정문제의 종류 등이 달라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그들의 지위나 삶의 경험이 달라지며 그들이 본국에서 가졌던 지위는 그들의 삶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식 또한 다르다. 이처럼 앞으로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연구나 대처방식은 결혼이민자의 삶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체류 외국인의 인구 구성을 보면 세계인이 한국사회로 이주해오고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주민은 몇몇 국가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 다인종화 사회는 아직 시기상조(한건수, 2008)라고 하기도 한다. 전체 국제결혼사례 중에서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은 76.1%이며, 국제결혼의 건수는 2008년 약 36,204건으로 2000년도의 11,605건에 비해 약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총 결혼건수의 11.1%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 이혼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 11,255건으로 전년도 보다 29.8%증가 하였고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전년대비 11.1%증가를 보이고, 외국인 처와의 이혼은 39.5%증가(통계청, 2009)하여 결혼이민자와 한국남성간의 이혼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에서 결혼이민자의 적응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한 가정의 핵은 부부인데 그 부부 중 한명이 결혼이민자이므로 이들이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의 적응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부적응과 가족들의 협조와 이해가 최우선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일차적으로 결혼이민자의 노력도 있어야 하며, 남편의 역할이 강조되고 남편의 노력을 강조하고 교육과 상담의 필요성을 지적한 연구(김오남, 2006; 윤형숙, 2004; 추현화 외, 2008; 홍달아기, 채옥희, 2006)들을 볼 때 결혼이민여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는 부부적응과 가족적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핵심적 역할은 결혼이민여성들의 남편이 중요하다는 것(김민경, 2009)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결혼인 남성들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주관적 차별감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결혼적응이 높은(추현화 외, 2008) 반면 사회적 지지가 별로 영향을 주지 않으나 가족지지는 결혼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장운정, 2007)을 미친다고 하여 가족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한국인 남편과 가족은 문화차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배울 필요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서 국제결혼가족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여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의 의식이나 자원은 그대로 둔 채 이주여성만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를 가지며 국제결혼여성과 남편, 가족전체를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장운정, 2007)고 제시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은 문화도 다르고, 서로에 대한 기대와 결혼의 동기도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채옥희·홍달아기, 2008). 특히 이들 다수의 가정은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 관념이 뿌리 깊게 남아있는 시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김오남, 2006),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와 가족의 무시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직결되기 때문에 새로운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그동안 결혼이주여성들의 부부갈등의 주요요인으로 문화적 갈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제시하면서 이들 갈등해결을 위해 한국어습득과 한국문화이해에 초점을 두어왔고 다문화 가정에는 한국문화만 존재하고 남편들이나 가족들도 결혼이주여성의 문화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결혼이주여성과 가족을 위한 가족지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김희주·은선경, 2007)함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출신국가와 문화에 대한 가족들의 무관심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이주여성들이 직면하는 갈등의 주요요인이자 소통을 가로막는 핵심요인으로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가족들의 민감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는 작업이 시급(김이선 외, 2006)하다고 하여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결혼부부교육도 여성만의 한국적응을 위한 문화체험과 의사소통에 관한 언어교육이 대다수(추현화 외, 2008)라고 하여 교육프로그램의 편중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할 때 가족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연구는 실로 짧은 기간 내에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가족통합교육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주로 결혼이민여성 당사자에게 집중된 경우가 많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접근하기 쉬운 체계적 프로그램이 부족하였다. 앞으로 다문화 가족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국문화는 물론 이주여성의 문화도 포괄해야 하며 결혼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와 친척들에게도 다문화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다문화적 관점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의 초기 적응과 정착을 위해서 가족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이 함께 하면서 공동의 학습과 활동 기회를 가짐으로써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원간의 적응, 친밀감 증진,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용적인 가족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가족통합교육 활동은 온 가족이 함께 있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보도록 유도함으로써 어색함을 줄이고 실제생활에서의 적응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가족 간의 모습을 통해 집단 상담과 유사한 자기통찰과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가족 간의 신뢰와 소중함도 증진되리라고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관련 교육프로그램은 부부교육, 시부모교육, 부모자녀교육, 예비배우자 및 배우자교육(서형순, 2009)등이 있으며, 이들 각 대상을 통합한 가족통합교육 프로그램은 보건복지가족부·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개발한 가족통합교육프로그램(2006)과 농촌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정도(2008)로 개발이 미미한 상태이다. 2006년도의 가족통합교육의 내용을 보면 부부, 시부모, 자녀의 대상별 교육과 가족전체대상 교육으로는 인간관계훈련, 상담교실, 나라별 언어교육 등으로

상담교실은 가족공동강의로 되어 있다. 가족협동 활동은 음식 만들기, 지역사회탐방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진행방식은 1박 2일로 50분을 단위로 편성이 되었으며 교육방법은 활동과 실습을 교육내용에 따라 편성하였다.

농촌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프로그램(2008)은 농사문화에 대한 차이와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발달과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설계와 대화법, 가족편지, 칭찬릴레이 등 가족이해와 친밀감 증진을 위한 작업들로 구성되었으며, 교육대상별 부부, 시부모, 손자녀를 분리하여 교육하도록 계획되었다. 총 5회기로 1회기는 관계형성과 마음열기를 위한 레크리에이션과 친밀감게임, 2회기는 문화이해를 위한 다문화사회 이해와 농사문화 이해하기 등, 3회기는 가정경제 점검과 10년 후 가족모습탐색, 계획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4회기는 부부개별프로그램과 손자녀 개별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부부교육에는 부부대화탐색과 대화법, 손자녀 교육에는 시부모와 손자녀의 유대강화를 위한 가족나무 그리기, 풍선아트 등으로 구성하였고 5회기는 가족유대감 강화를 위해 마사지경연대회, 가족화, 가족편지낭송, 칭찬 릴레이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밖에 교육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다문화 가족의 관계개선을 위한 사업으로는 통역원을 동반한 가족상담과 자녀와 함께하는 한국문화체험, 부부자조모임,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가족 다문화체험 등의 내용(서형순, 2009)이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가족통합지원교육내용은 의사소통 시 위기대처전략, 결혼이민자가족 간 교류, 엄마나라·부인나라 이해, 확대가족대상교육기회제공 등을 지원(오운자, 2007)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족통합교육프로그램은 위의 두 연구가 있으며 결혼이민여성과 함께 사는 가족들의 가족통합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근거를 밝히고 있는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순미(2006)는 개인의 적응 문제(의사소통 능력 부족, 문화 격차 등), 가족 내 적응 문제(부부갈등 및 시부모와의 부적응 등), 자녀양육 등 이들의 적응에 대한 사회적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착에 애로를 겪고 있어, 이들 가족을 위해 언어, 가족생활, 문화적 격차해소를 위한 적응지원프로그램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주여성에 대한 심층인터뷰에 의한 연구(이태옥, 2006)에 의하면 이주여성 과 남편, 가족들의 관계는 현재는 갈등적 모습을 보이나 가족관계의 친밀성은 이들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여 가족 간의 친밀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증진을 위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의사소통이 가족 간의 친밀성 증진에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필리핀출신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희주·은선경, 2007)에서는 가족문화의 차이로 인해 남편과 갈등을 겪고, 본국에서는 가사분담이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가족이 항상 함께하는 가족중심생활인데 반해 한국의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어서 자신들을 통제하려하는 점과 한국사회의 술 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는 태도가 결혼생활을 힘들게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혼이민여성과 한국인 가족들은 나름대로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며 그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족을 비롯한 한국인들의 일방적인 동화요구와 문화적 혼성성에 대한 수용의 제한으로 그 어려움이 배가되고(김이선 외, 2006) 있어서 가족 간의 이해가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을 빈곤과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피해자로만 보는 것은 이들이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결혼의 의미, 내용, 가족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행위자임을 인식해야(윤형숙, 2004b)함을 생각할 때 이들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제결혼을 남성의 경제력과 여성의 성적서비스의 교환이라는 관점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국제결혼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사회적인 무언의 압력이라고 볼 수 있다. 결혼이민여성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주체적 행위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Constable, 2003; Simons, 2001). 다문화 사회가 사회문화적 코드로 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가족으로서, 이웃, 친구 등 사회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여성의 일차적 환경인 가족원간의 문화적 차이와 가치, 의사소통 등 상호 이해증진을 통한 가족통합이 최우선적인 과제이며 이는 결과적으로는 사회통합으로 이어져야 한다. 향후 국제결혼여성들에 관한 연구는 이들의 한국 사회에서의 갈등과 적응이라는 단순통합모형을 넘어서 초국적인 가족형성이 한국의 가족과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윤형숙, 2004a).

국제결혼의 어려움이 많은 것과 비례해 다문화가정의 이혼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제결혼 이혼건수가 2002년도에는 전체이혼의 1.2%였는데 2009년도에는 9.7%(통계청, 2009)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자녀는 6세 이하는 57.1%, 만 7~12세는 32.2%로 2008년 약 58,007명(행안부, 2008)이다. 이러한 통계는 이들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일부 자녀들의 언어발달 지체 및 장애, 학습능력 저하, 또래집단따돌림 등이 사회적응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가족 전체의 문제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가족안정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는 미래의 성숙한 국민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언어교육과 보육시설, 학교 등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과 수용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이주여성의 재문화화와 함께 이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와 문화적 차이를 자연스럽게 나아가 긍정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사회분위기 등이 전제될 때에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김이선 외, 2006)이라고 보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은 단순한 거주자로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우리 국민으로서 자녀를 통해 향후 지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주요 자원으로서 기능하여야 하므로, 이들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접근을 통해 이들의 잠재력을 개발해줌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이들 스스로가 지역인적자원으로서 적극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II.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삼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가족원들의 상호간이해와 친밀감 형성, 가족관계증진을 달성할 수 있는 가족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구성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수합,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프로그램 내용구성의 주제 도출을 위하여 문헌고찰과 설문지를 통해 각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동안의 사업수행과정에서 보고 느꼈던 점들을 수집하였다. 설문은 크게 가족통합교육에서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가족전체, 부부, 자녀, 시부모 등 대상을 고려하여 응답하도록 하였고, 경험했던 교육내용 중에서 좋았던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하여 자유롭게 서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종합하여 내용별로 분류하였다. 그 내용은 · 문화예술을 통한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 · 자녀수련회 · 가족의 타임캡슐 · 가족장기자랑 · 가족나들이 · 체험캠프 · 엄마나라탐사 · 가족이 함께하는 여

행·가족운동회·부부10계명만들기·가족달력만들기·소망나무·야외체험활동 등이었다.

그 밖의 교육 방법에 대한 의견은 교육의 형태는 집합이나 캠프가 효과적이며 체험을 통한 교육이나 그들의 경험을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진행상의 건의는 통역요원을 배치하여 가족들 간에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 영역별 전문 강사를 채용하여 교육대상자들이 어떠한 수준이라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질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내용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결혼 전에 가족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었다. 즉 국제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고취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 결혼과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 상호간의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 가족들에 대한 성격 파악을 통한 이해와 친밀감 강화 등을 교육내용으로 추천하고 있다. 그밖에 교육대상별 즉 부부, 시부모, 자녀 등에게 요구되는 교육내용을 가족통합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별대상에 대한 내용들은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반영시킴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의 필요성과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나 사전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결혼이민자나 한국인 남편, 시어머니, 자녀를 위한 가정생활의 총체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고, 당일(8시간), 숙박형(1박2일)의 가족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당일에 수행되는 가족통합교육은 가족모두가 마음껏 즐겨서 행복이 배가 되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숙박형 교육은 가족 모두 함께하는 교육과 세대별 내용별로 나뉘어 진행되는 성인대상교육, 아동대상교육으로 전개하였다.

1. 프로그램의 목적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인간의 평등함과 가족 간의 이해를 돕는다.
- (2)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한다.
- (3) 가족 간의 친밀감증진을 돕는다.
- (4) 가족기능을 강화한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1) 가족 전체의 마음열기를 유도하여 가족으로서의 든든함과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2) 가족이 함께 하면서 공동의 학습과 활동 기회를 가짐으로써 결혼이민여성과 그 가족원간의 적응, 친밀감 증진, 가족기능을 강화한다.
- (3) 공동작업과 활동을 통해서 신뢰를 확인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
- (4) 가족 전체가 모여서 집단상담의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5) 현장에서 온 가족이 있는 곳에서 직접 해보도록 유도함으로써 어색함을 줄이고 실제생활에서의 적용을 쉽게 한다.

2. 프로그램설계의 기본 방향

- (1) 교육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을 최대한 반영한다.
- (2) 다양한 환경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특별한 전문가가 요구되는 내용은 되도록 배제한다.
- (3) 효과는 좋으나 실행이 어려운 내용은 제안을 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 (4) 다양한 형태로 조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융통성있게 운영하도록 한다.

3. 가족통합 프로그램 운영세부지침

(1) 교육내용 지침

- ① 주제와 내용이 일관성있고 문제해결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 ②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 ③ 실제적인 활용방법을 제시해 준다.
- ④ 교육내용과 방법은 교육대상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수준과 요구에 부응해야한다.
- ⑤ 가족 동시교육의 장점 특히 상호 피드백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2) 학습 진행방법

- ① 수업은 크게 도입, 전개, 마무리의 순으로 진행한다.
- ② 도입단계에서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 ③ 의견제시를 격려하되 다수의 참여를 유도한다.
- ④ 주요 내용을 지침, 활동목록 등으로 요목화하여 제시한다.
- ⑤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도록 유도하며 해결책 찾기에 적극 참여하도록 격려한다.
- ⑥ 마무리 단계에서 강의내용을 요약해주고 실천항목들을 정리해줌으로써 후속학습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화한다.
- ⑦ 프로그램 주제 선정에 있어서 피교육자의 요구도가 높은 한국사회의 적응과 가족관계 향상을 중심으로 하되, 대상별 분리교육을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성을 높인다. 단 가족 공동의 교육은 반드시 통역을 활용한다.

(3) 교육환경 조성

- ① 어린 자녀를 위해 안전한 탁아 공간 확보 및 전문요원을 배치한다.
- ② 동시교육 및 조별활동을 위하여 강의실 3개소, 활동실 5개소 이상 확보한다.
- ③ 상담교실, 레크리에이션 시간 등에 전문가를 확보한다.
- ④ 가족협동 활동을 위한 기자재 및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 ⑤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선물 등 촉진물이 필요하다.
- ⑥ 교육시간동안 자유로운 활동과 참여를 위해 유니폼을 입도록 하든지 참여복장에 대한 주의사항을 미리 공지한다.

IV. 프로그램의 구성과 실제

1. 프로그램의 구성

다문화가족관련 종사자들의 요구조사결과 다문화 이해, 가족갈등, 의사소통, 가족 간의 기본예절에 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가족들의 요구는 서로의 성격차이로 인한 가족갈등, 의사소통, 생활방식의 차이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선행연구(안현정, 2003; 양순미, 2006; 장운정, 2007; 홍달아기. 채옥희, 2006)고찰에 의하면 의사소통, 문화차이의 이해, 친인척 관계갈등, 서로 다른 가치의 차이 등 차이에 관한 이해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가족통합교육내용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화합의 장으로 프로그램 참여자간의 친밀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족 통합적 놀이와 게임을 통해 화합을 유도하게 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이해의 장으로 화합을 유도한 후 서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문화 이해와 가족갈등, 표현방법을 내용으로 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희망의 장으로 가족 간의 서로에 대한 기대와 미래의 희망을 나누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유형은 8시간의 당일형과 1박2일의 숙박형으로 구성하였으며, 다문화 가족의 다양한 상황에 따라 조합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 회기는 120분을 기준으로 3단계교육으로 편성하였고 내용구성은 강의 및 발표, 게임을 통한 이해, 가족협동활동, 관계개선작업 등으로 이루어졌다. 교육대상의 크기는 결혼이민여성가족 15가족으로 4인 기준 총 60명 내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숙박형 프로그램은 오전에 출발하여 다음날 오후2시에 종결하는 형식과 오후에 출발하여 다음날 오후6시에 종결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족통합교육은 삼세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너무 긴 시간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무리가 있다. 또한 불거리를 제공하여 가족여행과 유사한 기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참여가족들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2. 프로그램의 실제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문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돕고, 가족 간 소통의 기술과 의식의 변화를 통해 서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간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있다.

본 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시방법에서는 참여대상이 남녀노소를 포함하여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들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표 1>의 당일형 프로그램은 크게 화합, 이해, 희망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가족통합을 위해 중요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화합의 장에서 ‘마음을 열면 기쁨이 가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 낮은 환경과 사람들과의 만남에서의 어색함을 감소시키고 일체감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을 잘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족들이 상의하여 가족별칭을 짓고 그 이름을 불러주어 가족의 통합감을 주도록 한다.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는 중간에 가족들의 포즈를 찍어서 칼라프린트를 하여 복도나 뒷벽에 전시를 해놓는다. 사진을 출력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마지막 희망의 장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 표현된 사진에 스티커 투표를 하여 종결 시에 시상을 하고, 사진들을

준비하여 사진틀에 넣어 전체 가족들에게 선물로 준다. 이해의 장에서는 가족 간의 문화와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청각 자료를 통해 강의 후에 퀴즈를 내어 복습을 하고 선물을 준비하여 참여자의 흥미를 높인다. ‘동요 부르기’는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불리워지는 간단한 동요를 선택하여 외국발음을 한국어로 표기하여 온 가족이 함께 부른다. 이때 각국의 대표를 뽑아 선창을 하게 하면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연습 후 서로 다른 언어로 부르게 함으로써 타국의 언어배우기가 어렵다는 것을 가족 모두가 실감하여 결혼이민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미고사인사법’은 각국의 발음으로 모두 연습하게 하여 실제 표현하고 싶어도 알지 못해서 혹은 쑥스러워서 하지 못한 말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때 비언어적인 마음의 표현을 하게하고 그 말을 한 사람과 들은 사람의 느낌을 나누도록 한다. ‘손 마사지’는 실제 마사지 전문가를 통해 지식도 전달하고 여기에 접촉의 기적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가족들과의 파트너를 바꾸어 가며 시부모와 며느리, 아들과 부모님, 자녀 등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느낌을 나눈다.

마지막 희망의 장에서는 ‘희망의 배 띄우기’는 가족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며 ‘희망의 열매달기’는 가족의 미래설계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통해 서로의 생각차이를 알게 하는 작업이다. 이 두 작업은 유사한 희망을 다루고 있으므로 선택적으로 융통성있게 운영하면 된다. ‘희망의 배 띄우기’는 여러 그림도구들을 제공하여 색칠과 내용을 가족들이 상의하여 공동 작업을 하는 것으로 완성한 후 그림에 대한 설명과 느낌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이때 가치나 희망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생각하기 힘들어 할 수 있는 가족들을 위해 보조봉사자들이 옆에서 힌트를 줄 수도 있으며, 미리 몇 가지를 제안해줄 수도 있다.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발표를 보면서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촛불의식에서는 ‘서로의 마음 전달하기’로 프로그램 참여 후 달라진 자신의 가족에 대한 느낌을 한 명씩 표현하도록 한다. 촛불을 붙이는 과정도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글을 한국어와 외국어로 한 줄씩 교대로 낭독한다. 결혼이민자들의 국적이 다양하므로 가장 많이 참여한 국가의 언어를 하나만 선택하여 하는 것이 분위기의 맥을 이어나갈 수 있다. ‘활동영상보기’는 현장에서 편집이 불가능하므로 촬영을 할 때부터 15분정도의 동영상을 계획하여 촬영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보여준다. 하루 동안 웃고 행복해 하였던 순간들을 되돌려 보는 것은 가족들에게 여러 의미를 줄 수 있다. 종결식에서 주는 가족사진은 집에 돌아가서도 좋았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의미있는 선물이 된다.

숙박형 프로그램은 당일형 프로그램에 세 그룹 활동을 포함시켜서 교육의 목적에 따라 참여그룹을 구성한다. 1박을 하는 첫째 날에는 부부, 시부모, 자녀로 그룹을 나누어 별도의 교육을 한다. 부부교육에서는 사랑의 언어나 성교육으로 구성하고 시부모교육은 역할극을 통한 며느리와 시부모입장 이해하기, 수다 떨기 등을 통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답답했던 마음을 서로 나누게 함으로써 며느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자녀교육은 미운오리 새끼와 같은 자존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동화를 선택하여 동화구연을 해주고 의미부여와 함께 스스로의 느낌을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어머니나라 국기를 그려서 엄마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한다. 2일째 세 그룹 활동은 시부모와 남편, 결혼이민여성, 자녀그룹으로 구분하여 시부모와 남편그룹에게는 가족을 두고 시집은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입장 바꿔 생각하기’를 일상생활의 다양한 장면들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진행한다. 결혼이민여성그룹에게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한국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도록 ‘입장 바꿔 생각하기’를 한 후 ‘며느리들의 수다방’을 통역을 동반하여 함께 나눔으로써 집단상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행한다. 자녀그룹은 ‘나만의 티셔츠를 만들어 봐요’를 통해 염색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게 하고, 놀이치

료의 기법을 이용한 신문지 찢기를 통해 마음 놓고 자신을 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준다. 이때 세 그룹 활동은 각 그룹이 동시에 다른 방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숙박형 프로그램은 오전에 출발하여 다음날 오후2시에 종결하는 형식과 오후에 출발하여 다음날 오후6시에 종결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숙박형의 교육내용은 당일형의 내용을 공유하면 된다. 가족통합교육은 삼세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너무 긴 시간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무리가 있다. 또한 불거리를 제공하여 가족여행과 유사한 기분을 체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참여가족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다.

<표 1> 가족통합교육프로그램 : 당일형

(가족통합교육 : 8시간프로그램) 사랑은 가슴을 타고				
목 표	1. 가족 전체의 마음열기를 유도한다. 2. 서로간의 신뢰를 확인하도록 한다. 3. 한 가족으로서의 든든함과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단 계	내 용	방 법	시 간	
화 합 의 장	1. 프로그램소개 및 화합의 장 1) 사전조사 및 진행자 자기소개 2) 강의 참여에 대한 감사와 격려 강의의 개요 소개	레크레이션을 잘 구성한다(별칭으로 소개하기,머리위로 공넘겨주기, 가족대항 떨기대회,헨들커버통과하기 등등).	120분	
	2.마음을 열면 기쁨이 가득 1) 즐거움으로 하나 되기(레크레이션) 2) 별칭짓기 3) 가족사랑 포즈로 사진찍기	별칭의 예를 제시해줄 것 (‘나무꾼과 선녀’, ‘영이와 철수 와 같이 쉽고 친근한 것으로) 사진을 프린터출력하여 뒤편에 부착		
	휴식			10분
내 용 의 장	3. 알고나니 이해할 수 있어요. 나의 문화 당신 문화 1) 문화이해하기(명절, 관습, 호칭 등) 2) 동요 부르기(한국어, 외국어) 3) 미고사 인사법-배우고 표현하기	ppt를 통한 강의 ppt. ox판 외국발음프린트 외국발음프린트	30분 20분 20분 20분	
	4. 손 마사지(서로의 접촉을 통해 느낌)	수건, 오일 배경음악: 어머니은혜	30분	
	휴식			10분
	5. 희망의 나라로 1) 희망의 배 띄우기 (당신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 2) 희망의 열매달기(선택사항)	4절. 크레용		60분
희 망 의 장	6. 서로의 마음 전달하기(촛불의식)			
	7. 하루를 마무리하며(활동영상보기)	초, 불	30분	
	8. 종결식(가족사랑사진 컨테스트)		10분	
	9. 사후평가	부착판, 테이프	20분	
준비물	프린터(사진인쇄용종이), 4절켄트지, 크레용, 집착 테이프, 수건,오일 초 라이터, 동요와 인사법 프린트지, ship판(내용), hope판, 문구, 씨디플레이어 동요씨디 (나미야 곶세마리 어머니은혜)엘씨디,스크린,캠코더,사진판,스티커,명찰,수료식매 동영상, 상품			

<표 2> 가족통합교육프로그램 : 숙박형

첫 째 날		둘 째 날	
시 간	활 동 내 용	시 간	활 동 내 용
10:00		07:00~08:00	기상 및 운동
10:00~10:30	사전조사, 소개 및 친교,	08:00~09:00	아침식사
10:30~12:30	문화향기 속으로	09:00~11:00	세 그룹 활동 (<u>시부모, 남편, 결혼이민여성, 자녀</u>)
12:30~13:30	점심식사 및 휴식		희망의 장
13:30~14:30	화합의 장(레크리에이션)	11:00~12:30	(가족통합교육) 사후평가
14:30~16:30	이해의 장 상호이해를 위한 문화놀이	12:30~14:00	점심식사
16:30~17:00	휴식 및 간식	14:00~	해산, 혹은 불거리 탐방
17:00~19:00	동요 부르기와 미사교 인사법 (각 국의 언어로)		
19:00~20:00	저녁식사		
20:00~21:00	세 그룹 활동 (<u>부부, 시부모, 자녀</u>)		
21:00~	가족 친목시간 및 취침		

V.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종결 후 인터뷰에 의한 의견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했고, 이제는 며느리 나라말로 인사를 해야겠다고 다짐했고, 나만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시어머니들의 말을 들어보니 우리가 이해하고 도와줘야 하는 점을 느꼈다고 하였다. 말이 안통해서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지만 오늘 함께 있어보니 참 소중한 우리식구라는 것이 더 느껴져 예쁜 마음이 막 솟는다고 기뻐하였다. 시아버지들도 아들내위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며느리와 가까이 할 기회를 갖게 되어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이 더 들었다고 말했다. 나도 외국어를 배워보니 발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웃었는데 며느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남편들은 부인나라의 문화적 우수함과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게 되어 자녀들에게 알려줘야겠다고 하며 자녀들이 컸을 때에 이런 교육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기도 하였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남편과 시부모를 위한 상호문화이해 프로그램이 필요하며(신경희, 2007) 문화 간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부부간 몰이해와 갈등을 유발(김오남, 2006)시키므로 가족 간 문화차이를 줄이기 위한 교육은 필요하다. 며느리 또한 ‘희망의 배 띄우기’를 하면서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으며 더 착한 아내와 며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울먹였고 참석자들도 감동을 함께 하였다. 남편들은 처음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참석했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고 돌아가고 싶었는데 부인과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집에서 하지 못하는 작업을 통해 책임감과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다음부터는 이런 교육이 있으면 꼭 참석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유하겠다고 하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은 시간이 조금 짧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교육의 효과는 만족스럽다고 평가하였다. 개선해야 할 점은 프로그램 시간은 조금 딱딱한 느낌이 있었으며, 임신부의 경우 긴 시간동안 앉아 있는 것이 무리가 되었고 아이들이 잠투정을 할 때 힘이 들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족통합교육에서는 쉴 수 있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조용한 공간과 장난감, 여벌의 옷과

기저귀 등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농촌 결혼이민자가정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신경희, 2007)에서도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의 필요하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가 아니어야 한다고 하듯이 다문화 가족의 상호적응을 위해서는 가족모두가 참여하는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대상별 지지그룹의 활동으로 서로에게 정보를 줄 수 있어야 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문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돕고, 가족 간 소통의 기술과 의식의 변화를 통해 서로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 간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있다.

본 프로그램은 당일형과 숙박형으로 상황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프로그램은 크게 화합, 이해, 희망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가족통합을 위해 중요한 키워드를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화합의 장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낯선 환경과 사람들과의 만남에서의 어색함을 감소시키고 일체감을 위한 레크리에이션을 잘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해의 장에서는 가족 간의 문화와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시청각 자료를 잘 이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결혼이민여성들은 모국어로 발표하도록 하고 한국어로 통역하도록 하여 충분히 표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사지’와 ‘미고사인사법’이나 ‘동요부르기’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통해 결혼이민여성을 이해하고, 쑥스러워서 하지 못하는 말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느낌을 나누게 하는 체험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 희망의 장에서는 가족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서로의 생각차이를 알게 하는 작업이다.

다문화 가정의 가족통합교육은 전체 가족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참여대상이 된다. 따라서 진행자는 진행 중 참여자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휴식시간에 대한 안내와 자녀들에 대한 안전, 어르신에 대한 예의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프로그램 진행시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참여대상자의 모국이 같은 동질성을 갖는다면 교육의 효과성이 높겠지만 그러한 구성을 갖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통역요원을 활용한다. 특히 전달하는 메시지가 교육에서 중요한 영향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통역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다. 프로그램 진행시 통역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시간 배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고려하여 시간 내에 많은 것을 하기 보다는 참여자들이 이해하고 느끼고 있는지를 확인해가며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의 내용은 프로그램 시작할 때 레크리에이션의 운영이 전체 프로그램의 역동에 큰 영향을 주므로 전문가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므로 직접 경험이나 생활과 관련이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교육내용은 시청각 자료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전달에 효과적이며 감정을 전달하는 방법도 언어보다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역할바꾸기를 하여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시부모대상 교육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시부모들에게는 함께하는 시간 동안 긍정적인 점과 강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여 고부간의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시키도록 한다.

이와 같은 융통성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교육전문가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통합교육에서 강조할 점은 가족여행과 교육과 재미를 프로그램 속에서 녹여내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가정의 가정환경과 지역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내용과 방법이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가족통합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풀이 형성되어서 전문적이고 융통성있는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결혼이민여성의 다양한 출신국가를 고려하여 국가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나 가족들의 다문화 이해를 위해서는 통역을 동반한 혼합형 교육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통해 볼 때 프로그램의 개발연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그들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의 장이 많이 열리고 많은 참석이 유도되어야 한다. 다섯째, 집단상담의 원리를 적용하여 지도자가 있는 자조모임을 가족단위로 하여 생활상의 문제를 상담해줌으로써 잠재력을 개발해 주고 가족 간의 오해의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는 세계화되어 가는 사회에 맞추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다문화 가족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통합과 다문화 가족들의 자긍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상호 긍정적인 관계를 위한 다양한 가족문화 이해 프로그램 시행과 나아가 지역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통합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의 발전을 위해 다른 문화도 수용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경(2009). 국제결혼 남성의 ‘부부되기’에 대한 문화기술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79-211.
- 김상임(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창립3주년심포지엄, 이주여성인권센터, 17-48.
- 김오남(2006). 이주여성의 부부갈등결정요인연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이선 · 김민정 · 한진수(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갈등경험과 소통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 김희주 · 은선경(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대처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사회복지연구** 35, 33~66.
- 보건복지가족부(2009). 다문화가족지원네트워크대회, 보건복지가족부.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 보건복지가족부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8). 국제결혼 한국남성 예비배우자 교육프로그램, 2008-결혼이민자-31.
- 보건복지가족부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8). 별처럼 빛나는 농촌다문화가족 가족교육프로그램, 2008-결혼이민자-35.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서형순(2009). 결혼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1-92.
- 설동훈 외(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발표회자료집, 보건복지부.

- 신정희(2007). 농촌의 결혼이민자가정 교육프로그램개선을 위한 연구, 서강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창현·김진이(2008). 부부의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및 가족응집성.적응성과 갈등대처방식간의 관계,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2), 95-114.
- 안현정(2003). 국제결혼부부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주경(1999). 저소득층 가족의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형숙(2004a). 외국인 출신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지방사와 지방문화**8(2), 299~336.
- 윤형숙(2004b). 국제결혼 배우자의 갈등과 적응,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최협 외, 한울아카데미.
- 이태옥(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가족과 사회적지지망 연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운정(2007). 국제결혼한 한국남성의 결혼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라남도 여성정책과(2004). 이주여성가정폭력시달려, <http://gjhotline.org/zboard/>.
- 전만길(2005). 외국인주부 한국생활실태조사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옥희·홍달아기(2008). 피해사례를 통해서 본 결혼이민자남편의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17(5), 1-12.
- 추현화·박옥임·김진희·박준섭(2008). 결혼이주여성남편의 가족스트레스, 사회적 지지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지** 13(4), 85-101.
- 통계청(2009). 2008년 혼인.이혼 통계결과, www.nso.go.kr
- 한건수(2008). 2008다문화가족지원네트워크전국대회, 보건복지가족부,19.
- 행정안전부. www.mopas.go.kr e나라지표 www.index.go.kr
- 홍달아기·채옥희(2006). 사례로 본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생활실태와 갈등, **한국생활과학회지**15(5), 729-741.
- Constable. Nichole(2003). *Romance on a global stage*,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 Simons. Lisa Anne(2001). *Marriage, migration and markets: International matchmaking and international feminism*. Ph.D Dissertation. Univ. of Denver.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박 충 선(대구대학교)

국제결혼과 외국인 국내거주자들의 증가로 인하여 한국사회는 점차 다문화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수 혈통주의, 단일 민족, 혹은 단일언어로 뭉친 한국인이라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사고는 쉽게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국제결혼 가정의 해체현상이 증가된다는 점에서 이제 단순히 다문화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가족 전반의 ‘가족해체’현상에 더욱 주목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특히 국내 여성과 외국인 남성과의 결합보다 국내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합이 더욱 심각한 해체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는 가족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가족통합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이다. 게다가 가족통합교육의 중요성을 부부중심 만이 아니라, 부부를 둘러싼 친인척 등 주변사람들의 역학적 관계도 포함시켜 ‘통합성’을 강조한 것은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을 세밀히 파악하고 현장중심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정확하게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연구의 전체적인 틀과 논지에 대하여서는 크게 이견이 없지만, 구체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요하는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논문의 제목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통합”이라고 하였는데, 실질적인 논문 내용은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논문에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시키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한다.
- 2) “가족통합”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보다 이론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즉, ‘가족통합’이란 무엇인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측정해 왔는가?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측정하고자 하는가 등... 개념과 특성, 그리고 측정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가족통합 교육’의 내용의 논리적 근거가 뒷받침되고,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의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3) 가족통합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할 경우,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가족의 형태, 부부의 연령, 실시되는 지역(도시/농촌 등), 배우자의 출신국, 교육정도, 그리고 경제상황 등의 변수들은 교육실시에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사전 조사가 실시되어야만 교육의 효과성을 높힐 수 있을 것이다.
- 4) 본 연구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주로 주관적인 평가에 의존하였다. 다른 기존 프로그램이나 앞으로 실시될 프로그램과 비교하기 위하여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되는 평가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5) 본 연구에서의 프로그램 실시시에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여기서 전문가란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현재 전문가양성의 시스템은 어떠한가? 혹은 전문가 양성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언급이 추가된다면 앞으로의 프로그램실행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6)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언급한 프로그램의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기존의 프로그램들이 단편적이고 대상단위별이라고 언급하고는 있지만, 자칫하면 본 논문의 프로그램들도 역시 그러한 측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따라서 ‘통합교육’으로서의 본 프로그램의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연구자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적 성격을 띤 현장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통합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인정되고, 현장적인 실행을 전제로 세밀하게 프로그램진행과정을 설명하고 평가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의의가 크다고 판단된다.